

祖々に對하여 무슨面目이잇스랴。

물아보진대 半島에佛敎를復活시키는것은半島文化를復興한다는것이며 半島人士의幸福을增進한다는것이다。일즉佛敎가極盛하든三國時代는半島文化가々々爛熟하든時代였스며 佛敎가衰微함과한가지文化도退步한觀이잇는것은歷史가보이는바이다。

그러면半島에서 우리佛敎徒가엇더케하여 佛敎를復興시키며 엇더케하여佛法을擧揚시킬가하는方法이야말로重要한問題이다。여기對한解答은一로서止할바아니지만은 要는 人材養成이다는데나지안는다。佛敎界에有爲한人材가群起하여 多士濟々함에至하면 佛敎의布敎宣傳은盛하게되고 正法은顯揚될것이아닌가 이러케하여佛敎가社會人心을裨益시키고 佛敎徒가社會進歩에貢獻이잇게되면 自然

히僧尼의社會的地位도向上되야 將次濟世의導師 人

天의眼目이眞實을擧함에至할것이라한다。宗敎는有爲한人材 有能한布敎者에依하여서만盛大하게되는것이다。여기서 賢明한朝鮮各本山巨刹이 그聯合機關인朝鮮佛敎中央敎務院을通하여 本校를設立開始하여 有爲한佛敎의人材를養成할나는所以가잇는것이다。

本校에서배우는學生諸子 興趣를發達得한우에篤學精進하여 佛敎에對한근은信念과 眞正學識을잇어서 他日朝鮮佛敎를爲하여 不惜身命覺悟로써奮闘活躍지안으련안될것이다。半島佛敎의前途는洋々한希望의光明에서빛나고 佛日이再輝할것같은事實이다。아！本校에서배우는諸子의責任은重大하고 本校의使命은大할진저。(終)

佛 教 大 學

佛敎社社長 權 相 老

大道는二致가업고 聖人은二心이업다하면 孟氏의말피가치 先聖後聖이 그揆는 한가지일것이다

엇지時의先後로써 道에先後가잇스며 地의東西로써 道에東西가잇스랴 그러면 曰儒 曰仙 曰佛

이 同一한道일것은 다시擬議할것도업는바이지마는 從來에 서로排斥하고 서로譏笑하여 말지아니한지가 一再에그치지아니하였스니 만일 그들의말과가치 譏笑排斥할實際가잇다하면 聖人의道가아닐것이오 만일 그러치안라하면 그것은後人들이 道의體相을알지못하는데서 생기는奇現象에 지나지안는다。다시말하면 聖人之道로써 告해준 사람이업는까닭이다。그림으로 筆者는恒常 三敎一致를말하여야한다。

仙敎는且置하고 儒敎와佛敎와가 엇더한點에서一致되는가하면 大學首章에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 이라한것만으로 넉넉히一致點을말할수잇다。道란어데잇는가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에잇술것이오 道란무엇인가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이그것일것이다。그것을엇지하여 道라고하는가하면 從因至果 從凡至聖 從迷至悟하는歷程인까닭이다。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을 大學의三綱領이라한다 그러나 이것이文字의形容만 言을써이지 其實은佛敎의三覺이다。明明德은自己의固有한明德을 明케하는것인즉 이것은일은바自覺이오 新民은民이

卽人인즉 人을新제하는것이覺他일것이오 明明德 新民우가지가 모다至善에止케하는것은覺滿일것이다。明明德 新民이 모다至善에止하면 그것은聖人일것이오 自覺 覺他가 모다圓滿하면 그것은佛일것이다。東方의聖人이 大人之學을說할때에는 明明德 新民을 至善에그치게하고 西方의聖人이 菩薩行을說할때에는自覺 覺他가圓滿에일으게하섯다。明德은本覺의性일것이오 明은始覺의修일것이다。自性煩惱를은는것이 明明德일것이오 自性衆生을濟度하는것이 新民일것이오 自性佛果를成就하는것이 止於至善일것이다。明德 民 至善은一境三諦일것이오 明 新 止는一心三觀일것이다。

明明德은般若德일것이오 新民은解脫德일것이오 止至善은涅槃德일것이다。般若(智) 解脫(斷) 涅槃(恩)의 「三德이 不縱 不橫 不並 不別하는것이 大人의覺인즉 明々德 新民 止至善이 不一 不二 不即 不離한것이 大人의學일것이다。

至善에止하기爲하여 明德을明하니 이것은 因該果海일것이오 明德을明함을因하여 至善에止하게되니 이것은 果徹因源일것이다。明德은名字覺이오 明은觀行覺이오 明々德은相似覺이오 新民

至善은分證覺이오 止는究竟覺이니 名字覺을從하야 觀行覺이起하고 觀行覺을조차 相似覺을잇고 相似覺에서 分證覺에올오고 分證覺에서究竟覺에 일오나니 究竟覺에일오면 大人之學은無學位일 것이다.

그러나 究竟覺을妙證하자면 반듯이 妙悟 妙修가 잇서야하는 것이니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이러한 大學의八條目이그것이다. 知는妙悟요 定靜 安 慮는妙修요 得은妙證이다. 止는止於至善 이라는止인즉 止를知한다함은 因에서果를悟함임으로 妙悟가될것이오 悟하는分上으로는 極果의如何를頓悟하였지마는 事相에잇서서는 漸次의修證이엄지못함으로 定靜 安 慮가잇는것이니 動靜二相이업는것을定이라하고 聞과所聞이盡한것을靜이라하고 覺과所覺이空한것을安이라하고 空과所空이滅한것을慮라하니 知는根本智요 得은後得智이며 止는戒요 定靜 安는定이오 慮는慧니 戒는禁止하는것이오 定은外絶諸緣하는것이오 靜은内心無喘하는것이오 安은心如牆壁한것이오 慮

는了了한智慧니 三學이圓滿한然後야 妙果를能得한다는말이다.

그러나 理上의頓悟로써 事上의漸修를廢하지못 하는것이며 一念의具足으로써 三祇의歷修를廢치 못하는것이니 自未得度하고 先度他人이 是處가 업스며 自眼이不明하고 能教他人이 得策이아니 타 自己의明德을明치못하면 新民도不可能이며 止至善도不可望이라 그럼으로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라한것이니 本과始는先할것이오末과終은 後할 것이나 그先後를知한다고 그것이 究道가아니라 겨우道에近할것이오 知한것을가지고 定으로부러得에까지가는것이 그것이 일은바道라는것이니 이道를行한者도 東西의聖人일것이오 이道를發明한者도 東西의聖人일것이오 이道를指示한者도 東西의聖人일것이다. 그러나 聖人이出世한後에 비로소開拓진道가아니라 天地보나도 오히려先하야 잇는것이저마는 世人은알지못하고 聖人은안것만 이다물것이며 여러聖人이說하였다고 道가多歧한 것이아니라 西에잇는聖人은西에서 基點을定하고 東에잇는聖人은東에서基點을定한것만이 가지아니

할것이며 古수에세가달음으로써 道에變史이잇는 것이아니라 古人은道에迷한지 얼마되지아니하였 고 今人은道에迷한지 오래된것만이들릴뿐이니라 글을이러케읽으며 뜻을이러케解說하면 華嚴·法華가엇지 三綱·五常을說하지아니하였스며 中庸·論語가엇지 四諦·六度를論하지아니하였스랴 房안에虛空이 房밖에虛空과달오다는主唱者는 與論할것도업지마는 大海의물방울이 百川의물방울 아니라는者도 孟浪하기가짜이업는리이다.

自己의脚力이 一日에百里가는것으로 標準을삼 아서 神行太保를否認하지마라 道는恒常큰데잇고 적은데잇지아니하며 넓은데잇고 좁은데잇지안느니라.

宋의周敦頤(濂溪)가 晦堂心禪師의게 教外別傳의旨를問한즉 心禪師가諭하야曰

「只消向你自家屋裡打點 孔子謂朝聞道夕死可矣 畢竟以何爲道 夕死可耶 顔子不改其樂 所樂何事 但於此究竟 久久自然有箇契合處」

라하고 佛印元禪師를見하고 서로講道하다가 佛印의問하되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禪門何謂無心是道」

라하나노한즉 佛印禪師는此를答하되

「疑則別參」

하라하니 濂溪는다시

「參則不無 畢竟以何爲道」

오함에 佛印은다시答하되

「滿目青山一任看」

하라하니 濂溪는言下에有省하야 一日은窓前에 艸生한것을見하고 忽然히自家意思와 一般임을悟得 하야 一偈로써佛印의게呈하되

「昔本不迷今不悟 心融境會豁幽潛 艸深窓外松當道 盡日令人看不厭」

이라하였다. 濂溪는宋儒中에도翹楚이였고 平日의用工도무던이敦篤하든이엇섯다. 그러나 晦堂禪師의게「畢竟以何爲道」의答을하지못하였다가 다시 그것을가지고 佛印禪師의게물어서 그言下에 自家

底를 省悟함이잇는것을觀하건대「大學之道」라는 「道」字도 千古나亦是文字又是唇舌만으로만 「道」 「道」할것이었고 道가畢竟에무엇임을알지못할것이 疑心업는事實이다. 그러라하던 究竟에佛敎만곧 直切簡要하게道를말킨것이 업는것인즉「大學之道」 도佛敎에依하야 解釋치아니하면 畢竟에「道」가

무엇임을 알수없을 것이다。儒者들은 自家의 「道」 條를佛教로써融釋하여본바이다。그러나 文長의嫌을알지못하거나 잊지他를知하랴 하는것이 筆者의 趣意를알지못하여 이에그치려하고 남어지는 다음 偶然치아니한생각이다。그리하여 大學의三綱 八 機會를기다리는바이다。

古木春

石顛沙門

春風은彼此가 어찌있을가 花枝스사로가 長短이不無하다일칼났다。우리애봄은늦재야 찾아하면 山이높고골이깊은 가운데 千章古木이 芾芾피 재되얏스죽 그애威이 悲喜交擊이 안이달수 업 재된다。漢城北面에 佛教專修學校 樹立된今日에 서 우리佛教全體로든지 學校來由를 對想하면 아무생각보다도 古木春이구나 開口안이치못하겠 다。우리佛敎의現狀을 살필때에 어찌천耳食者는 在古의小乘敎가 漸漸히大乘敎가되야간다 하는소 때도 업지안락 무슨點을보고 그것게孟浪說을披 露할가 深山에孤守하였은 比丘僧가 春潮를말하 霧淪雲變한걸 同情同聲함에不過한것이다。좀깨矣 眼光으로 볼지이다。이러케濁浪이排空하고 魚 頭鬼面이 頭出頭沒하게된 僧侶의新劇 開幕을보 면서 拍手喝采曰大乘敎가法如是라한단말가。 近古에一例를들것다。葆堂이檀和尚이海印寺弘濟 庵齋室에있을때다。그이自言과갓치 逃禪一流가方 丈에地居함을말하 弘濟一衆도蕩々無碍로僧行이라 한다。爾時에 그것네願堂庵에서는 智異山玩禪法 師를 邀請하여華嚴山林을 進行하였고 또한모용 이極樂殿講堂에서는 履歷法會를한다하야 學人를 이紅袈白襦을설々이고 오락가락道場에형성드못하 다。葆堂和尚은늦진지장스고 된지지고 石橋春風 에 진일다가 石顛沙門을 撞著하였다。그때에石 顛은至今石顛이였다。그和尚이石顛을보고莞爾히一 笑하였다。그다음에 조흔말상으로가르되 요새이

에저편에서는 華嚴山林을안다지 또스님은履歷經典 을 가르친다하지 모다華嚴一乘은 障에도못보았 다。정말弘濟庵에서 華嚴山林을 잘안다엇더케 잘 하는가 첫재染淨이無碍하고 晝夜飽眠이自由이고 셋재杏花天夕陽되면甘紅露에半醉하야 雲墟美姬와 秋波가往來한다。其外에無限滋味가一口難說이다。 스님도華嚴經을안다하니말이지 得魚忘筌을못하면 文字것집싸기만 唯할려 어허니할우승을 또우섯 다。또한石顛도우섯다。그웃슴에解脫門도 어들면 하였다。수일에朝鮮우리집家風은 모다弘濟菴그씨 보다 열마나開放하였는가 참一乘華嚴의無障佛法 界를開發하였다한다。어대르장은가葆堂和尚이 華嚴劇을喜觀치안이라고 然이나葆堂和尚그사람이 正觀이라하면 釋尊과達摩와는 出世가잘못이며 渡海는무상일고 일언語句는禪宗의本分語와도相似하 여진다。如此한羅盤針 엇기어런 風潮頭에 佛教 專修라는 名字는보아도古木春의感想이업술가。

古木은두삼일노 多風多雪을 견대기어려워타어 던가지는鹿角이되였다。어던가지는暮烟으로化하였 다。입새는荒雨에석겨우수수더러질제 글이르든士 女의秋聲嘯을일으키게된다。日暮西山에깃드림을차

밧음파서추듬으로서 홀홀한얼굴을 여
리분압해 못내계됨을深謝하나다
學 藝 部 白